

## 근대교육시설의 문화재 지정현황과 건축사적 의미

### A Study on the Status of Designated Cultural Properties of Modern Educational Facilities and The Meaning of Modern Architectural History

김 승 배\*  
Kim, Seung-Bae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architectural history of designated cultural properties of modern educational facilities through the analysis of its status.

This study considerate acceptance and evolution of modern educational facilities during the about seventy years from 1895 to 1965. Also, this study analyzes items that is distribution of construction and designation year, regional groups, and status of main structure material, status of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of facilities, its characteristics of architectural style.

In this study, the result of analysis show that most analysis items of investment buildings are tend to biased and concentration to one direction. Accordingly, designated cultural properties of modern educational facilities are weakly express architectural representation and symbolism in the period of modern educational acceptance.

키워드 : 근대교육시설, 지정문화재, 근대 건축사적 의미, 보존, 활용

Keywords : Modern Educational Facilities, Designated Cultural Properties, Modern Architecture historical meaning, Conservation, Utilization

##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건축물은 지어지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바탕으로 한 건축경향, 구조와 시공기술, 건축재료 등을 포함한 건축생산 전반에 걸친 시스템 까지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시대의 화석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한 나라의 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의 경우는 건축사적 배경과 상징적 의미까지도 포함되어 건축된 당시의 시대상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자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 대부분이 일정기간 동안 경험하게 되는 학교건축물의 경우, 우리나라에 근대교육기관이 수용되기 시작하는 19C 후반부<sup>1)</sup> 이후부터 1980년대 이후 열린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전까지는

공공건축물로서의 가치로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로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이러한 배경에는 근대교육 수용 초창기에 지어진 대부분의 학교건축물은 소실되어 없어졌고, 1950-60년대 표준설계도를 이용해 지어진 학교건축물은 작품으로서의 의미보다는 근대화화 산업화라는 시대적 상황에 맞물려 필연적으로 만들어 질 수밖에 없었던 시대성 측면에서의 의미로 인식돼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근대교육시설의 문화재 지정현황이나 보존현황은 다른 용도의 건축물보다 양적으로 열악한 것이 현실이지만 문화재지정 근대 교육시설들은 부족한 史料의 한계 속에서도 해당 시대와 지역의 교육적 시대성을 반영하고 있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본 연구는 문화재로 지정된 근대교육시설의 총괄적 현황분석을 통해 대상 건축물의 건축사적 의미와 특성, 가치를 정리하고, 문화재로 지정된 근대교육시설이 해당시대와 지역의 교육적, 건축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지와 지정현황의 문제점과 과제 등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 정회원, 경북대 공간디자인과 교수. 공학박사  
(sbkim@kyungbok.ac.kr)

1) (사)한국교육시설학회, 한국 근대학교건축 발달사 전편. 2004.3 2쪽 재인용. 1894년 갑오경장이후부터를 근대교육의 발아기로 보고 있다.

### 1.2 연구의 범위

현재 문화재청에서 고시된 유적건조물 문화재는 등록문화재를 포함한 10가지 유형<sup>2)</sup>에 총 6,444개가 있는데 이중 연구대상 건축물은 총 636개의 교육문화시설 중에서 서원이나 서당과 같은 600개의 교육기관을 제외한 25<sup>3)</sup>개의 근대교육문화시설과 549개의 등록문화재 중 교육시설로 분류되는 36개의 문화재 등 총 61개의 문화재를 최종 연구대상건축물로 선정했다. 또한 문화재청에서 발간된 기록화조사보고서와 문화재 소개 자료, 기존 연구자료, 보고서 등을 토대로 해당 건축물의 건축적 현황을 파악한 후 건축연도 및 지정연도의 분포, 설립주체와 시설유형의 현황, 보존과 활용현황, 지역적 분포 및 구조재료의 현황 등의 통계적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Table 1. Selection of analysis buildings

구분	사적	유형 문화재	기념물	문화재 자료	등록 문화재	계
총괄	484	2,844	1,605	2,483	549	7,965*
대상	12	7	3	3	36	61

\* 지정문화재의 총괄 숫자로서 유적건조물 숫자보다는 많다. 등록문화재는 2013년 4월까지의 현황을 반영했고, 나머지는 2013년 3월까지의 현황으로 문화재청 홈페이지 통계정보자료. 지정문화재총괄(표)를 참조했다.

## 2. 근대 교육시설의 변천과정과 건축적 특성<sup>4)</sup>

교육시설은 제도와 법령의 변화가 곧 교육 시설물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근대 교육시설의 수용과 변화의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근대 교육이 수용되는 시점부터의 교육 제도와 법령뿐만 아니라 적용된 당시의 건축적 경향 등도 함께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1895년 근대교육 수용시점부터 해방 후 제1차 교육과정이 개정되고, 학교교사의 표준설계가 최초로 적용되기 시작하는 1960년대 초반까지의 시대적 상황을 바탕으로 연구대상 건축물의 건축적 특성과 의미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 2) 문화재로 지정된 유적건조물은 등록문화재를 제외하고 주거시설, 정치국방, 교통통신, 교육문화, 유물분포지·산포지, 무덤, 산업생산, 종교신앙, 인물사건 등 총 9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어 있다.
- 3) 636개의 교육문화시설중 600개의 서원과 서당건축물을 제외하고, 36개의 근대교육문화시설 중 어린이대공원 같은 문화시설 10개, 2012년 세종시 편입으로 등록이 해제된 1개 학교를 제외하면 총 25개가 최종 연구대상 건축물이 된다.
- 4) 2장의 내용중 시대구분과 특성에 대한 내용은 (사)한국교육시설학회에서 연구용역을 맡주하여(책임연구원 진봉희) 2004년 3월 학회제출한 “한국근대학교건축발달사 - 전편, 후편”을 참고하여 필자가 재정리 하였다.

### 2.1 근대교육의 수용과 발아의 시기(1895-1910)

1894년 갑오경장이후 전근대적 사회체계를 개혁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고, 성균관을 제외한 구 교육기관을 철폐하는 등의 개혁사업이 진행되면서 새로운 학교제도가 확립되었던 이 시기를 한국근대교육의 발아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의 근대학교는 크게 정부(관립)와 기독교계 선교사 및 민간 지식인 등 세 부류에 의해서 학교설립이 추진되는데, 대부분의 최초 민간사학 과 관립학교는 민가나 관청건물, 향교 등 한옥을 變用해서 사용했다. 그러나 선교사학은 기독교 선교사업이 교육목적적이었던 만큼 서구에서 보편적이었던 조적조 건축물을 신축함으로써 전통건축 사용시기가 상대적으로 짧았다. 대표적인 학교로는 당시 동남아시아에서 이입된 것으로 추측되는 식민지 배란다스타일<sup>5)</sup>의 이화학당((1899)과 최초의 樣式 학교건축으로 알려져 있는 조적조 르네상스 양식의 배재학당(1887)이 있다. 하지만 이 시기에 주목할 만한 학교건축은 선교사학임에도 불구하고 2층의 한옥교사로 건축된 숭실학당(1901)이라고 할 수 있다<sup>6)</sup>.

1905년 을사보호조약이후 통감부설치와 보통학교령 공포 등 일제식민지배가 가속화되면서 일제의 교육체계 장악을 위한 교사신축이 늘어나게 되면서 이 시기 대부분의 학교들은 당시 일본의 학교건축과 유사한 樣式指向의인 목조교사형식을 따르고 있었다. 그러나 이 시기의 일본본토의 근대학교건축은 미국에 의해 1853년 개항된 이후 和洋折衷式 학교건축의 시기<sup>7)</sup>를 거쳐 19세기 말부터 비닐판

- 5) 서양 건축양식이 기후가 더운 인도나 동남아시아의 식민지에 적용되면서 변형된 형식으로 이러한 배란다 양식의 수도원 건축이 이 시기의 종교계에도 나타난다.
- 6) 한국에 파송된 장로교 선교사들이 한국교회 선교를 위해 총체적인 선교전략(the overall strategy)으로 1890년 채택한 것이 네비우스 선교정책(Nevius Methods)이다. 이 정책은 일종의 지역 친화적 선교정책이라고 할 수 있어서 지역 선교사 양성 선교방식이나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직접 자신의 양식으로 교회를 짓도록 하는 등의 선교전략의 영향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측한다.
- 7) 김영재. 나카무라 요시헤이의 서양건축양식의 수용과정과 그 의미.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제29권 제5호(통권295호). 2013.5 160쪽 재인용. 17세기 크리스토퍼 렌이 이용한 간략화된 고전양식을 토대로 미국 대부분의 공공건축과 주택을 목조로 건축하게 되는데, 이때 목구조를 벽돌구조나 석조구조로 보이도록 석축벽에 채색을 하거나 판을 조합해 석재처럼 보이도록 하였다. 1853년 미국이 주도한 개항이후 일본에서도 이러한 미국의 선례를 따라 목구조로서 연와조와 석조를 표현하여 擬洋風이란 지역적 건축양식을 만들어 내게 된다. 이러한 경향은 자본과 기술력의 부족으로 인해 건축의 장식성에 치중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당시 일본에서는 외국기술자들에 의해 서양의 특정 樣式을 일본에 이식하기 보다는 일본건축을 이해

벽의 목조교사와 조적조교사로 정착되어 가는 시기였지만 식민지 한국의 공립학교에는 목조비닐판벽형식의 학교건축이 樣式指向的 교사로 나타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당시의 이러한 특성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학교시설이 탁지부 건축소가 설계한 관립공업전습소 구분관(사적279호/1908/사진1)으로써 비닐판벽외장의 2층의 목구조로 르네상스양식을 표현하고 있다. 특히 이 건축물의 정면 탑은 일본의 擬洋風 건물과 유사한 특성을 보이고 있어 탁지부 건축소를 통하여 학습된 건축기법이 전해졌음을 추측할 수 있다. 또한 당시의 선교사학들은 개신교 및 가톨릭의 종교적 특성표현에 적합한 樣式을 차용한 조적조의 학교건축을 건축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건축물이 최초의 가톨릭신학교인 코스트 신부가 설계한 조적조 고딕양식지향의 서울 용산신학교(사적520호/1892/사진2)와 한·양절충식 특성을 보이는 계성학교 아담스관(대구유형문화재45호/1908/사진3) 등을 꼽을 수 있다. 특히 개신교의 계성학교는 당시의 대구지방의 선교사학의 교세<sup>8)</sup>의 영향력을 엿볼 수 있는 대표적인 학교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Figure 1.



Figure 2.



Figure 3.

이밖에 부산진일신여학교(부산시기념물55호/1905)의 경우는 개신교의 선교사학임에도 특정한 樣式性을 갖고 있지 않는 모던한 건축적 특성을 보이고 있고, 현재 종교단체 예배당으로 사용되고 있는 구. 순천 선교부 외국인 어린이학교(등록124호/1910) 등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 2.2 제 1차 조선교육령의 시기(1910-1921)

이 시기는 일제에 의한 교육통제가 강화되던 시기로서

하여 일본풍을 혼합한 樣式(和·洋절충식/擬洋風)을 만들려는 시도가 많았는데 이러한 일에 앞장선 대표적인 사람이 윌리엄 버체스의 제자였던 조시아 콘도로르<sup>9)</sup> 1876년 25세의 나이로 1877년 개설된 공부대학(工部大學) 조가학과를 담당하게 되며 고딕, 르네상스, 바로크, 팔라디언, 빅토리안 퀴엔, 사라센, 인도풍의 절충양식 표현을 자유자재로 적용할 수 있었다. 또한 이후에 그의 제자인 타츠노 킨고, 카타야마 토우쿠마, 소네 타츠조, 사타치 시즈지로 등에게 영향을 주었다.

8) 이도영. 대구·경북지역 근대건축문화재 교육시설 현황. (사)한국교육시설학회지 제19권 제4호(통권 제89호 2012년 7월 43쪽 참조. 대구지방의 최초의 신교육은 일본인이 아닌 선교사들에 의해 설립되고 운영되었기 때문에 가톨릭 및 개신교 중심의 신학교가 많았다. 이러한 영향으로 대구지방의 근대교육시설 중 선교사학시설이 양적으로 우세하고, 상대적으로 문화재로 많이 지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1911년 8월 조선교육령을 제정하고 조선의 학제를 개편하여 조선을 식민지화하기 위한 교육시책을 수행하던 시기였다. 또한 이 시기의 학교건축은 학생 수 증가로 인해 2층의 교사가 필요하게 되고, 책걸상을 사용하게 됨에 따라 1905년 이후 나타나기 시작하는 일본식 목조교사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한옥교사들이 사라지게 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특히 표준화된 도면이 등장하게 되고 중앙부의 지붕을 박공으로 처리하면서 중심성을 강조하는 입면구성이 자리 잡기 시작하는 시기였다. 이러한 입면적 특성을 보이는 학교시설에는 광주의 구.수피아여학교 수피아홀(등록158호/1911/사진4)과 영화초교 본관(인천유형문화재39호/1911/사진5) 등이 있다. 또한 이 시기는 외국 전문건축가에 의해 학교건축물이 건축<sup>9)</sup>되는 시기로서, 당시의 학교건축은 크게 절충적인 樣式性을 가진 목조 및 조적조樣式 학교건축물이 함께 지어지는 시기였다. 이 중 대표적인 당시의 절충적 양식성을 가진 조적조 교사로 는 나가무라 요시헤이(中村與資平)가 설계한 중앙고교 서관(사적282호/1921/사진6)과 헨리머피(H. K. Murphy)가 설계한 튜더고딕<sup>10)</sup>양식의 연대스팀슨관(사적275호/1920/사진7)이 있다.



Figure 4.



Figure 5.



Figure 6.



Figure 7.



Figure 8.



Figure 9.

또한 RC+조적조 2층 르네상스양식의 이화여고 심슨기념관(등록3호/1915/사진8)과 배재학당 동관(서울시기념물 16호/1916/사진9), 한·양절충식 특성을 보이는 계성학교 맥퍼슨관(대구유형문화재46호/1913/사진10), 로마네스크 및 고딕양식에 가까운 가톨릭 성유스티노 신학교(대구문화재자료23호/1914/사진11)같은 선교사학의 조적조교사는 동일 시기의 조적조 공립학교 교사보다 조적조사용에 있어서 선 기법을 보이고 있으며, 보다 양식성이 풍부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밖에 1차 조선교육령 발표 후 대전에 처음

9) 대표적인 건축가로는 조적조 樣式경향의 숙명여학교와 중앙고교 등을 설계한 中村與資平과 연희전문학교의 마스터플랜과 언더우드관, 스팀슨관, 아펜젤러관 등을 설계한 헨리 머피(H. K. Murphy) 등을 꼽을 수 있다.

10) 튜더왕조시대의 건축양식으로 전통 고딕양식에 르네상스양식의 화려함을 더한 것이 특징이다.

생긴 2층의 조적조 삼성초교 구.교사(대전문화재자료50호/1911/사진12)는 유리사용이 많고 양식적 장식성이 우수하다고 평가받는다.



Figure 10.



Figure 11.



Figure 12.

### 2.3 제 2차 조선교육령의 시기(1922-1937)

이 시기는 1919년 3.1운동의 영향으로 일제의 식민지정책이 무단통치에서 문화정치로의 전환을 표방하면서 1920년대 융화정책을 토대로 교육체계를 개편하려던 시기로서 일본의 본토 교육체계에 준거하여 제2차 조선교육령을 제정하게 되는 시기이다. 특히 교육시설에 설비규정을 학교시설기준에 마련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그동안의 소수 제한적 학생모집 개념에서 취학개념으로 바뀌게 되면서 학생과 학교시설이 양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학교시설의 쾌적성, 보건성, 안전성 등의 기준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현재 문화재지정 교육시설의 개수가 가장 많은 시기인 이 시기 학교건축의 구조는 크게 조적조와 1920년대 경성부의 공립학교에 주로 적용되었던 목골철망콘크리트조<sup>11)</sup>(1920년대), RC조(1930년대초) 등 크게 3가지 학교시설로 나누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목골철망콘크리트조와 조적조 학교건축물은 상이한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외관에서는 좌우대칭적 구성에 중앙부 및 양단부에 페디먼트를 가진 경사지붕과 박공창을 설치하여 중앙, 양단부를 강조하고 수직선이 강조된 입면 등의 유사한 특성들을 보이고 있는바 당시 공립학교의 전형적 입면특성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시기라고도 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전형적 학교건축의 외형은 학생 수 증가에 따른 학교건축의 고밀화 및 내화, 내구성 확보, 추운 기후조건에 적응성 등의 필요성으로 인해 도입<sup>12)</sup>되는 1920년대 초반의 RC조 학교건축의 외관에서도 함께 나타나는 등 이 시기 학교건축물의 공통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성은 1930년대 초반에 가면 기능성

을 우선으로 하는 합리적 디자인을 추구하게 되면서, 계단실과 출입구를 기능적으로 배치함에 따라 좌우대칭적 구성을 탈피하게 되고, 입면특성도 수평성이 강조되며 내부의 기능적 내용이 입면에 반영되는 특성을 보이는 방향으로 변화하게 된다. 일자형의 평면과 도머창 및 수직성을 강조한 창문 등 1920년대 RC조 및 조적조 학교시설로서 양식성은 남아 있으나 근대적 입면특성을 가지고 있는 학교시설로는 (구)창영초등학교교사(인천시유형문화재16호/1922/사진13), 순천매산중학교 매산관(등록123호/1930), 광주 수창초교본관(등록95호/1931), (구)이리농림학교축산과교사(등록178호/1932), 광주 서석초교본관(등록17호/1935)<sup>13)</sup>, (구)청주상고본관(등록6호/1936/사진14), (구)대구상업학교본관(대구시유형문화재48호/1923/사진15) 등이 있다.



Figure 13.



Figure 14.



Figure 15.

또한 이 시기의 선교사학들은 대부분 아카데미 튜더고딕 양식풍 시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학교시설로는 정면에 두 개의 탑으로 정면성을 강조하고 있는 계성학교 헨더스관(대구유형문화재47호/1931/사진16), 당시의 전형적 입면적 특성인 중앙과 양단부의 삼각형 페디먼트를 가진 경사지붕과 도머창을 가진 석조+RC조인 이화여대 파이퍼 홀(등록14호/1935/사진17), 연세대 언더우드관(사적276호/1924/사진18), 같은 학교 내의 같은 시기에 지어진 아펜젤러관(사적277호/1924)을 꼽을 수 있다. 특히 연대의 두 건축물은 정면에 현관을 둔 좌우대칭건물로서 맞배지붕을 하고 있으며, 언더우드관은 초기 마스터플랜의 중심축이자 중요한 정점에 위치한 관계로 정면 현관 옥탑부분을 고딕풍의 탑 형식으로 올려 중심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입면적 특성을 보이나 양식성보다는 근대적 특성이 보다 우세한 특성을 보이는 사례가 좌우대칭적 입면구성에서 중심축을 강조하기위해 정면 옥탑층을 올려 정면성을 강조한 (구)대구의학전문학교 본관(사적442호/1933/사진19)과 (구)경남상고본관(등록329호/1927/사진20) 등이 있다. 아울러 이 시기는 H자형 평면을 가진 고딕양식의 3층 석조건축물로서 좌우대칭, 중앙부 및 양단부 강조라는 입면특성을 보이며, 영국과 미국의 유명대학의 학교시설에 영향을 받은 고딕양식지향적인 고려

11) 목조의 구조물에 철망을 삽입한 콘크리트외벽을 말한다.  
 12) 朝鮮建築會, 朝鮮と建築. 學校建築と設備號(特輯號). 昭和 3年 3月. 7輯 3號. 13쪽의 駒田徳三郎의 “學校建築”, 19-21쪽의 吉田秀吉의 “普通學校建築狀況”의 글에서 우리나라에 철근콘크리트구조의 교사를 도입하게 되는 배경이라 추측되는 RC조의 우수성에 대해서, 우리나라 동절기 기후에 대한 높은 적응력, 안전성과 경제성 확보측면에서의 높은 내화,내구성, 도시에 적합한 고밀화 등을 꼽고 있다.  
 13) 광주서석초교 본관과 함께 체육관(1930), 별관(1943)등이 함께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Table 2. Architectural status of selected analysis buildings

연도	문화재종목		시설명	연도		소재지	시설유형	활용(해제사유)		주체			규모 층수(지하) /면적㎡	구조	건축가 (시공자)	특성과 의미
	구분	번호		건축	지정 (해제)			여부	응도	설립	소유	관리				
1920-1939	사적	275	연대스팀승관	1920	1981	서울 대학	○ 대학행정동	선교사학	연세대	연세대	2층/449.6	석조	헨리 데이비드(밀러교수)	정면 현관 및 좌우대칭 입면형태, 장방형 일자창문 및 벽돌활공식, 고딕양식풍 설계자 미상, 화학과 교수 밀러교수가 공사감독, 아카데미 튜터식 고딕양식 구조		
		276	연대연두오르관	1924	1981	서울 대학	○ 대학본부	선교사학	연세대	연세대	4층/692.0	석조				
		277	연대아펜젤러관	1924	1981	서울 대학	○ 대학연구동	선교사학	연세대	연세대	3층/493.0	석조				
		278	구 서울대본관	1931	1981	서울 대학	○ 한국문화회관 출입동	관립학교	국가	국가	3층/664.46	조적조		박길룡	정면 포치형 현관, 수려한 조적디테일, 장방형현관의 고전적 디테일과 근대적 성향의 공존	
		279	구 공업전습소본관	1908	1981	서울 대학	○ 방송통신대	관립학교	국가	국가	2층/499.50	목조		박지부 건축소	독일 르네상스양식풍, 독일식 비탈난각의 외벽, 목조로 석조처럼 연골	
		281	중앙고교 본관	1935	1981	서울 중학교	○ 본관	민족사학	중앙학원	중앙학원	2층/1,071.0	석조		박동진	나카무라 요시헤이가 설계한 구 본관건축물의 화강토 스킴이 이후 다시 지어진 H자형 본관 2차형 교사배치형태 및 고딕양식	
		282	중앙고교 서관	1921	1981	서울 중학교	○ 강의동	민족사학	중앙학원	중앙학원	2층/297.52	조적조		中村興彦	T 자형 평면형식, 정면지붕은 박공지리, 배면지붕은 오목지붕지리, 도어창설지, 서관은 나카무라 요시헤이가 설계, 각구부에 절두아치설치, 고딕풍 표현	
		283	중앙고교 동관	1923	1981	서울 중학교	○ 강의동	민족사학	중앙학원	중앙학원	2층/323.97	조적조				
		285	고려대 본관	1934	1981	서울 대학	○ 본관	민족사학	중앙학원	중앙학원	3-6층/664.46	석조		박동진	H자형(본관)/평면의 고딕양식 양식추구, 미국과 영국의 석조 건축을 모방한적, 유크대학 도서관장조, 모서리 고딕식 정합설치(중앙도서관)	
		286	고려대 중앙도서관	1937	1981	서울 대학	○ 도서관	민족사학	중앙학원	고려대	5층/1,219.8	석조		박동진		
		442	구 대구약학전문학교 본관	1933	2003	대구 대학	○ 본관	관립학교	국가	경북대	3층/1,607.59	조적조			3층 조적건축물, 정면중앙에 4층사각탑(Turret) 중독층등 중앙현관포지.	
520	서울 용산신학교	1892	2012	서울 대학	○ 기념관	선교사학	개인	개인	2층/690.0	조적조		코스투스반	한국최초의 신학교건축물, 중앙현관 및 지하층입체단설, 도어창, 조적조			
1940-1949	시도유형문화재	인천-16	구, 향영초교 교사	1922	1992	인천 초교	○ 역사관	관립학교	교육청	교육청	2층/1,945.87	조적조			일자형평면, 르네상스풍의 당시 전형적 학교형식, 도어창과 근대적 현관	
		인천-39	영화초교 본관	1911	2001	인천 초교	○ 강의동	선교사학	영화학원	영화학원	3층(1)/9,101	조적조			현관이 융통한 사각평면으로 선교사학 상징, 서양교회형식의 학교건축물	
		대구-44	남산초교 강당	1936	2003	대구 초교	○ 체육관	관립학교	교육청	교육청	1층/396.70	조적조			적벽돌 단층건축물, 마름모꼴 만사드형 지붕, 정면현관 및 좌우대칭건축물	
		대구-45	계성학교 아담스관	1908	2003	대구 중학교	○ 교무실	선교사학	계성학원	계성학원	2층/407.85	조적조		아담스, 라이언	영남최초의 양식교사, 정면중앙탑, 동기와르네상스 양식 박공지붕과 서양고딕식 외벽형식으로 한양건축사, 대구양식 석재이용	
		대구-46	계성학교 백퍼스관	1913	2003	대구 중학교	○ 강당	선교사학	계성학원	계성학원	2층/414.0	조적조			적벽돌 2층 건축물, 한시모기기와지붕, 원형결구상, 좌우대칭형	
		대구-47	계성학교 현대서관	1931	2003	대구 중학교	○ 교실	선교사학	계성학원	계성학원	3층/2,639	조적조		현대서관	적벽돌3층의 르네상스풍 고딕풍의 절충으로 근원주의적 양식형식	
		대구-48	구 대구공업학교본관	1923	2003	대구 중학교	○ 사무실	관립학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2층/1,305.08	조적조			면북도 일자 평면의 적벽돌 2층 건축물, 정면출입 포치와 좌우대칭적 입면형식	
1950-1959	시도기념물	서울-16	배재학당 동관	1916	2001	서울 중학교	○ 박물관	선교사학	배재학당	배재학당	3층/	조적조			일자형 평면으로 지붕에 도어창, 조적디테일 우수, 정면 상각 피디먼트설치	
		광주-26	광주학살운동발상지(구, 견보회 본관)	1928	1999	광주 중학교	○ 역사관	관립학교	지자체	교육청	2층/11,305.8	조적조			광주학살운동발상지 주조학교 교사부지와 과 일부지역, 광주지리학교와 전연하고 일부부지를 지칭.	
		부산-55	부산진일신여학교	1905	2003	부산 중학교	○ 기념전시관	선교사학	교회재단	교회재단	2층/1,271.0	조적조			장방형평면의 오목지붕의 서양식 건축양식.	
		대구-23	성유스티노 신학교	1914	1990	대구 대학	○ 성당	선교사학	교회재단	교회재단	2층/895.7	조적조		프와날	르네상스-고딕양식 절충형식, 디지털타워서 양쪽날개와 정면일부, 절구	
		대전-46	대전여중강당	1937	2001	대전 중학교	○ 전시관	관립학교	교육청	대전여중	1층/370.9	조적조			피드모양의 곡선지붕, 지붕자마일벽돌지붕설치, 모서리벽돌지붕설치	
		대전-50	구, 삼성초교 교사	1911	2002	대전 초교	○ 박물관	관립학교	교육청	한밭교육박물관	2층/2,130	조적조			1911년 대전최초의 조종학교, 전후면 등에 사각형 및 원형의 유리창을설치	
		2	화동구, 경기고교	1938	2002	서울 중학교	○ 도서관	관립학교	교육청	교육청	3층/545-3973	RC			좌우대칭의 일자형평면의 전형적인 교구시설, 르네상스 루고양식	
		3	정동 이화여고기념관	1915	2002	서울 중학교	○ 박물관	선교사학	이화학원	이화학원	3(1)층/2,113	조적/RC			십자형 평면의 변형, 율동 정면포지설치, 승용탑형 문양, 근대주의적	
		2	대봉동 구, 대구사범대학 본관 및 강당	1923, 1925	2002	대구 대학	○ 본관, 강당	관립학교	국가	지자체	2층/1,293.9 1층/404.6	조적조			사각지붕의 평지붕을 현관설치, 우전각 강당지붕에 도어창 6개 설치	
		5	6	정주대성고교(구, 청주대성고교) 본관	1936	2002	충북 중학교	○ 교사	민족사학	청석학원	지자체	2층/1,566.3	조적/RC			비대칭 정면 평면, 정면출입문구수직적 인 디딤근대식학교의 전형
		12	공릉동 구, 서울고교대학	1942	2002	서울 대학	○ 교사	관립학교	지자체	지자체	3(1)층/10193	RC			보자르식 십자모양의 입면, 2차형 평면, 정면 포지설치	
13	대방동 서울공고 본관	1939	2002	서울 중학교	○ 교사, 본관	관립학교	교육청	교육청	3층/4,239	RC			일자형 평면 출몰개노피 십자형모양지붕, 벽돌틀마 문양, 근대학교시설전형			
14	이화여대 피터허플	1935	2002	서울 대학	○ 본관	선교사학	이화학당	이화학당	3층/4,281.30	석조/RC		보리스	H자형평면, 튜터식 고딕양식지붕, 여성적 디테일, 포지설치			
17	광주 서석초교(본관, 체육관, 별관)	1935, 1930, 1943	2002	광주 초교	○ 교사, 강당	관립학교	교육청	지자체	2층/2,203.64 1층/930.50 2층/2,130.85	조적조			광주최초의 근대식 공립학교, 박공지붕에 도어창(서당형), 돌출현관위 발코니설치(본관), 교실, 별관, 체육관(별관)			
30	구, 목포공업실업학교강당	1929	2002	전남 초교	○ 교사, 강당	관립학교	교육청	지자체	2층/1,176.12	RC			일본인학교강당, 타일장식, 목포의 유일한 일제강점기 조종학교 강당			
57	육천 죽향초교 구, 교사	1936	2003	충북 초교	○ 전시관	관립학교	교육청	교육청	1층/264.46	목조			육천지역 최초공립학교, 내부 목재비율관바탕, 면북도형 일자평면			
60	강경 중앙초교 강당	1937	2003	충남 초교	○ 강당	관립학교	교육청	교육청	2층/462	조적/RC			장방형 평면, 쌍대트리플 지붕구조, 내부 목재유물잔치마감			
73	소록도 구, 녹산초교 교사	1935	2004	전남 초교	x	관립학교	국가	국립소록도박물관	1층/451.9	RC			한성봉 관자를 위한 조종학교, 장방형본관과 화강설, 사회설이 연결되어 있고 교사를 남쪽에 배치하고, 목욕을 복도를 설치, 조종학교의 학교시설과 유사, 중앙현관포지위에 박공지붕설치하고, 십자가설치(성당학교교사)			
74	소록도 구, 성실중고교 성결학교 교사	1957	2004	전남 중학교	x	관립학교	국가	국립소록도박물관	1층/224.8	RC			좌우대칭형의 일자형 평면으로 모더니즘, 유물상을 상징하는 5개의 비공			
94	조선대학교 본관(일부)	1951	2004	광주 대학	○ 본관	민족사학	조선대	이길성/조선대자체	6층/1,430.1	RC			모양지붕에 한기장설치, 7차형 평면, 면북도형 조적지붕설치로 입면적 변화			
95	광주 수향초교 본관	1931	2004	광주 초교	○ 본관	관립학교	교육청	수향초교	2층/925.27	조적조			3층본체에 좌우대칭의 2층대칭의 신교구부의 정면중앙탑형위아치현관			
96	전남대 인문관 1호	1955	2004	광주 대학	○ 강의동	관립학교	전남대	전남대	3층/4,342.9	조적조		정육진	좌우대칭형, 일자형평면, 정면출입포지현관설치(십자형모양지붕)			
97	광주대 본관	1939	2004	광주 대학	○ 본관	관립학교	광주교대	광주교대	2층/2,366.47	조적조			팔각지붕, 정면32칸, 측면3칸, RC기둥 위 목재로 모르타르마감.			
121	구, 광주국립대학교 교사	1947	2004	전남 초교	○ 수련원	관립학교	교육청	교육청	1층/592.0	RC			역7차형 평면, 중앙부출입을 통한 정면성 강조.			
123	순천 배산중학교 배서관	1930	2004	전남 중학교	○ 교사	선교사학	호남기독교학원	호남기독교학원	2(1)층/1,616	석조			정면의 출몰 현관, 장방형 평면과 간결한 입면구성			
124	구, 순천교부 외국인 어린이학교	1910	2004	전남 초교	○ 예배당	선교사학	사학	사학	1(1)층/66.12	조적조			중앙현관포지위에 박공지붕, 피스조각설치(본관), 1.2층 돌출마와 수직창.			
158	광주 구, 수피아여학교 수피아홀	1911	2005	광주 중학교	○ 기념관	선교사학	호남기독교학원	호남기독교학원	2(1)층/1,027	조적조			선교사학의 구조, 예배당으로 사용되던 장식적인 요소가 많은 건축물, 원형 창과 침루아치 형식의 창문이 조화롭게 설치.			
159	광주 구, 수피아여학교 커티스메모리얼홀	1925	2005	광주 중학교	○ 교사동	선교사학	호남기독교학원	호남기독교학원	2층/172.38	조적조			장방형평면으로 박공지붕, 정면중앙에 3개의 아치가 연속된 출입구(강당), 본관앞 포지형현관 위문			
172	전주 신중고교 강당 및 본관포지	1936	2005	전북 중학교	○ 강당, 예배당	선교사학	호남기독교학원	호남기독교학원	3(1)층/2,448	조적조			만사드지붕, 내부 취임전장마감, 간략화된 정면성 등 근대성			
176	구, 고창고등학교본관 강당	1938	2005	전북 중학교	○ 강당	관립학교	교육청	교육청	1층/317	조적조			30년대 공립학교의 전형적 모습, 조적으로 다양한 입면적 변화효과			
178	익산 구, 이리농림학교 축산교사	1932	2005	전북 대학	○ 동아리실	관립학교	전북대	전북대	1층/399	조적조			근대기술진에 의한 지역내 최초공공건축물, 일자형 평면도형 및 배지붕과 우전각지붕의 연결설치, 8개의 거연 골돌			
239	구, 목포사범학교 본관	1954	2006	전남 대학	○ 강의동	관립학교	교과부	교과부	2층/2,042.0	석조		이기만	강당내부 단상정면에 벽감설치, 박공지붕과 장방형 수직창문 등 근대적 좌우대칭평면, 현관출입포지위와 그위 정합과 수직창, 근대+서양식의 통합			
272	홍성고교 강당	1943	2006	충남 중학교	○ 역사관	관립학교	홍성고교	홍성고교	1층/357.02	조적/RC			정면에 원형 패를 연상하는 아치형 포지치가 설치.			
328	구, 경남상고 본관	1927	2007	부산 중학교	○ 본관	관립학교	지자체	지자체	2층/1,087.25	조적/RC			남북방향의 장방형 평면의 강당, 정면에 목조로 된 일자형도어창을 가진 십자형 피디먼트의 출입구설치, 우전각지붕.			
337	강경 화교학교 교사, 사학	1956	2007	충남 초교	x	사학	지자체	지자체	1층/179(73)	목조			박공지붕의 양끝이 각인 만사드형 반박공형식의 지붕, 돌출현관에 민중형 투스칸식 유틸기둥을 반침형아치를 가진 포지치, 내부는 평면장 마감			
350	주성교회박물관(구, 청주공립보통학교 강당)	1923	2007	충북 초교	○ 박물관	관립학교	지자체	교육청	교육청	1층/400	조적조			충북도내 유일한 국내기갈로 지어진 석조교사, 외벽은 화강석비문층 받기, 7미터 장방형 평면, 간결한 입면구성, 연속된 수직창		
351	대성여자중학교(구, 청주대강당)	1954	2007	충북 대학	○ 체육관	사학	청석학원	청석학원	1층/454.21	조적조			좌우대칭형 입면구성, 정면의 박공지붕, 사각형조각기둥으로 된 현관포지, 근대기 전형적인 학교형식			
354	괴산중학교 구 본관	1946	2007	충북 중학교	○ 교사동	관립학교	교육청	교육청	1층/725.06	석조			경사지붕, 대칭형 일자평면, 정면중앙탑, 보자르식 입면구성			
356	거제 초교 본관	1956	2007	경남 초교	○ 교사동	관립학교	교육청	교육청	2층/1,764.72	석조			중앙현관포지위(투스칸 오디) 전면출입 두칸 돌출.			
369	서울산업대 박물관	1942	2008	서울 대학	○ 강의실합동	관립학교	교과부	서울산업대	2층/370.25	RC			2단만사드형 지붕형태, 원대형 보리스구조, 장식성배치된 근대적 지붕			
370	광주 구, 수피아여학교 한스프로우 홀	1927	2008	광주 중학교	○ 본관	선교사학	호남기독교학원	호남기독교학원	2(1)층/2,238	조적조		서로독(Swinhart)				
427	재물포교 강당	1935	2008	인천 중학교	○ 강당	관립학교	교육청	교육청	1(1)층/628.1	조적조						

대 본관(사적285호/1934/사진21)과 미국의 듀크대학의 도서관을 참고하여 설계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고려대 중앙도서관(사적286호/1937), 민족사학인 중앙고교 본관(사적281호/1935/사진22)등을 설계<sup>14)</sup>한 박동진과 경성제국대학 본부(구.서울대 본관/사적278호/1931/사진23)를 설계한 박길룡 등 한국의 건축가들이 본격적으로 활동하던 시기이기도 하다. 특히 박길룡의 설계로 미야카와구미(宮川粗)가 시공하여 현재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청사로 사용되고 있는 경성제국대학 본부(구.서울대 본관)는 장방형 평면에 정면 노출 캐노피 및 한쪽으로 치우친 포오치, 일부 창문 등에 고전적인 아치가 설치되어 있으나 대체로 과거 양식주의적 측면보다는 내외부의 장식성과 좌우대칭성을 배제한 근대적인 건축특성을 보이고 있다. 특히 당시의 배치도면을 보면 전면광장의 축 선상에 위치하도록 계획하고자 포오치를 한쪽으로 치우치게 계획한 것으로 판단된다.<sup>15)</sup>



Figure 16



Figure 17.



Figure 18.



Figure 19.



Figure 20.



Figure 21.

또한 광주의 (구) 수피아 여학교 내에는 앞서 언급한 수피아홀이외에도 1925년에 지어진 커티스메모리얼홀(등록159호/1925)과 이보다 2년 늦게 지어진 윈스브로우홀(등록370호/1927/사진24)등 2개의 등록문화재가 더 있다. 이 중 서로트(Swinehart) 선교사가 설계한 윈스브로우홀은 당시의 건축물로서는 드물게 좌우대칭의 정면에 투스칸 오더가 있는 포오치를 가지고 있다. 이밖에 이 시기의 학교시설 중에는 특이한 지붕형태를 가진 강당건물들이 많다. 이 중에서 충북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학교시설인 주성교육박물관(구.청주공립보통학교강당/등록350호/1923/사진25)은 강당용도로서는 특이하게 장변방향으로 주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상부 지붕처리가 독특하게 되어있다. 또한 왕대공 트러스 구조의 2단 만사드형 지붕을 하고 있으나, 내

부는 단순하게 평천장으로 처리하여 실용성을 강조하는 등의 근대적 건축 특성을 보이는 제물포고교 강당(등록427호/1935/사진26)이 있다.



Figure 22.



Figure 23.



Figure 24.



Figure 25.



Figure 26.



Figure 27.

이밖에 4각형의 석면슬레이트를 마름모꼴로 얹어 입면상 만사드형으로 인식되는 남산초교 강당(대구시유형문화재44호/1936)과 측면이 초가지붕 형태의 아르누보풍 지붕 곡선이 특징인 대전여중 강당(대전문화재자료46호/1937/사진27), 맞배지붕 형태의 RC조 (구)목포공립심상소학교 강당(등록30호/1929), 강경 중앙초교 강당(등록60호/1937), 전주 신흥고교 강당(본관 정면 포오치 포함/등록172호/1936), (구)대구사범대학 강당(본관포함/등록5호/1923) 등이 있다.

이렇듯 특징적인 지붕형태의 강당시설들이 문화재로 많이 지정되어 있는 이유는 일반교사와 달리 사용상의 융통성이 높아 보존 및 활용기회가 많았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당시의 교육적 상황에 맞는 교육시설로서의 건축적 가치에 대해서는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2.4 제3차 조선교육령의 시기(1938-1945)

일제가 조선에 대한 식민지 정책으로 황민화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1938년에 제정된 제3차 조선교육령은 첫째, 조선인과 일본인간의 교육적 차별철폐<sup>16)</sup>, 둘째, 황국신민화 교육의 강화, 셋째, 초등교육의 확충과 일본어보급 및 상용화 강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후 1941년에는 제3차 조선교육령 제정에 이어서 제4차 조선교육령이 제정되는데, 이 교육령은 군국주의적 국가체계에 따른 군사력 배양에 중점을 둔 전시체제교육령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수업연한을 축소하고, 고등교육기관의 이공계확대를 골자로 하는 전시체제의 교육정책으로 인해 학교건축에도 변화가 나타나며, 그 대표적인 것이 건축자재 통제에 따른 RC조 교사에서 조적조교사로의 회귀현상을 꼽을 수 있다.

14) 최초의 본관은 나가무라 요시헤이(中村與資平)가 설계했으며 1934년에 화재로 파괴된 후 박동진이 다시 설계하였다.

15) 김승배, 서울·인천지역의 문화재지정 근대학교시설의 개괄. (사)한국교육시설학회지 제19권 제4호, 2012년 7월 20쪽 참조. <http://contents.archives.go.kr>. 참조.

16) 유봉호·김용자 한국근·현대 중등교육 100년사. 교학연구사. 1998. 144-145쪽. 교육적 차별철폐조치는 조선인에게 일본인과 같이 병역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명분이었다.

또한 조적조 교사의 외형적 특성도 1920년대 조적조 교사에서 보이던 양식적 장식성이 사라지고 콘크리트구조의 단순한 합리적 경향의 디자인이 주류를 이루게 되며, 점차 학교건축의 설계 규격화와 표준화 경향으로 나타나게 된다. 특히 외벽의 구조체나 굴뚝 등을 노출시켜 내부면적을 확대하고자 하는 합리적 사고가 학교건축의 입면구성에 반영되고, 외부마감도 벽돌위 시멘트 모르타르로 마감하는 등 장식적인 내용이 사라지는 경향을 보여주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Figure 28.



Figure 29.



Figure 30.

이 시기의 대표적인 학교시설로는 스팀난방방식을 채택한 RC구조의 (구)경기고교(등록2호/1938/사진28), 현재 서울과학기술대학 내 전기전자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구)서울공과대학(등록12호/1942/사진29), 동일 대학 내 서울산업대 대륙관(등록369호/1942) 등이 있다. 또한 지상 3층의 RC조로 적벽돌 외부마감 및 모임기둥, 층간 백색 돌림띠, 정면중앙의 박공지붕의 고전성 등 이 시기의 규격화, 표준화된 근대적 입면의 정형성을 보여주고 있는 서울공업고등학교 본관(등록13호/1939/사진30)의 경우는 외부로 길게 내민 출입구 캐노피와 두 개의 원형기둥에서 초기 근대주의의 권위적인 모습의 건축형식을 엿볼 수 있다.

이밖에 1930년대 초반의 나타났던 좌우대칭의 중앙 정면부를 강조하던 전형의 교사모습을 보이고 있는 광주고대 본관(등록 97호/1939)과 앞선 시기에서도 보였던 만사드형 지붕을 가진 (구) 고창 고등보통학교 강당(등록176호/1938), 흥성고등학교 강당(등록272호/1943) 등이 있다.

## 2.5 해방이후부터 1차 교육과정의 시기(1945-1963)

1946년 미군정의 학무국은 의무교육의 실시를 발표하면서 초등학교 6년, 중. 고교 각 3년, 대학 4년제 등의 지금의 학제와 동일한 수업연한을 결정하게 된다. 또한 해방이후의 교육정책은 일제식 교육체제로 부터의 탈피를 우선으로 한 민족주의와 민주주의 교육의 토대구축이 미군정의 조선 새 교육의 지침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한국전쟁으로 인해 많은 학교시설들이 피해를 보았으며, 1950년대 이후부터는 반공교육이 모든 교육정책의 중심으로 강조되었다. 또한 1954년부터 1959년까지 의무교육확충 5개년 계획이 발표되면서 부족한 교실을 확충하기 위한 재원

을 본격적으로 투자하기 시작했다. 특히 1960년대의 베이비붐 세대의 학교 수용을 고려하여 1962년 문교부에서 처음으로 표준설계도를 개발하여 적용하기 시작했으며, 1960-70년대에는 각 시도교육위원회에서도 자체적으로 표준설계도를 마련하여 적용하기 시작하게 된다. 해방직후의 학교건축은 운동장을 전면에 둔 남향의 일자형 1-2개의 건물동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추후 학생수가 증가하면서 기존 건축물을 증축하면서 ㄱ, ㄷ자 형태로 발전해가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 또한 한국전쟁이후에는 미공병대의 도움으로 많은 벽돌조 학교들이 양산되기도 했던 시기였으며 입면은 경사지붕의 일자형 편복도식 건물형식이 1960년대 표준화설계도가 적용되기 직전까지 적용되다가 1970년대 이후 RC구조의 1-3층의 평지붕 학교건축물로 변화한다.

이 시기는 한국 교육시설의 양적변화가 가장 뚜렷한 시기였다고 할 수 있으나 현재 이 시기에 건축되어 문화재로 지정돼 보존, 활용되고 있는 학교건축물은 조선대 본관(일부)(등록94호/1951/사진31), 전남대 인문관 1호(등록96호/1955/사진32), 구. 목포사범학교 본관(등록239/1954), 구. 청주대 강당(등록351호/1954) 등 주로 대학시설위주의 학교시설로 대부분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Figure 31.



Figure 32.



Figure 33.

이밖에 충북도내 유일의 석조교사인 (구)괴산중학교 본관(등록354호/1946), 개량 한옥의 교사인 (구)구례 방광초교 교사(등록121호/1947)와 1930년대 전형적인 학교시설의 입면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계초교 본관(등록356호/1956/사진33), 소록도내 시설인 (구)성실중고등성경학교 교사(등록74호/1957)와 (구)녹산초교 교사(등록73호/1935), 그리고 강경 화교학교 교사 및 사택(등록337호/1925) 등이 있다.

## 3. 연구대상 건축물의 현황과 분석

### 3.1 건축연도 및 지정연도 분포현황

연구대상 건축물들은 제2차 조선교육령 시기에 해당하는 1920년부터 1939년 사이에 건축된 것이 전체의 50%이상(37개)을 차지하고 있으며, 비슷한 숫자의 건축물이 2001년부터 2005년 사이에 지정 및 등록문화재(17)로 지정

17) 2001년 3월 문화재보호법 개정을 통해 등록문화재 제도가 적용되기 시작한 영향도 있으나 2008년 이후 교육시설이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사례가 없다는 점이 더 중요하다.



되는 편중과 집중을 보이고 있다. 특히 12개의 사적 중 10개가 1981년 한해에, 7개의 시도유형문화재중 5개가 2003년 한해에 집중적으로 지정되었다. 결국, 교육시설의 문화재지정은 특정시기의 건축연도를 가진 건축물을 특정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지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시대적 지정편중성은 교육시설의 왜곡된 역사성을 표현하게 될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근대 건축물의 문화재지정을 위한 예비조사 성격의 목록화사업의 기존 결과물을 활용하여 건축시기의 고른 안배를 위한 새로운 교육시설의 발굴과 함께 지속적인 문화재 지정을 위한 노력을 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3. Distribution of Construction & Designation Year

건축 연도	1890 1899	1900 1909	1910 1919	1920 1929	1930 1939	1940 1949	1950 1959	계
지정	1	3	5	9	7			25
등록			3	6	15	5	7	36
지정 연도	1981 1985	1986 1990	1991 1995	1996 2000	2001 2005	2006 2010	2011 현재	계
지정	10	1	1	1	11		1	25
등록					25	11		36

3.2 설립주체 및 시설유형 현황

연구대상 건축물의 학교시설 설립주체는 국공립학교가 가장 많고, 선교사학이 민족사학(일반사학)보다 우세한 현황을 보이고 있다. 시설유형에서는 초등학교가 중학교, 대학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수를 보이고 있다. 즉, 국공립 중학교시설이 가장 우세하며, 선교사학의 대학이 다음으로 우세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는 초등학교사가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가 매우 적으며<sup>18)</sup>, 지방의 경우는 등록문화재로만 지정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는 초등학교의 경우 근래 신도시개발에 따른 노후화된 기존 시설을 철거하고 민자사업으로 새로운 학교시설을 건축하는 시대적 경향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국공립 및 선교사학의 학교시설이 문화재로 지정된 사례가 많은 까닭은 국공립학교의 경우 관리·소유 주체가 지자체 교육청, 혹은 국가이기 때문에 비교적 지정이 쉽고, 선교사학의 경우는 종교단체가 선교목적의 홍보·보존 차원에서 문화재지정에 적극성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특히 종교단체의 신학교 및 종교시설이 다수 지정되어 있는 것은 이러한 시설이 교육시설의

18) 인천유형문화재로 지정된 영화초교 본관, 창영초교 교사, 대구유형문화재인 남산초교 강당, 대전문화재자료인 삼성초교 교사가 전부이며, 이나마 강당용도와 본관용도를 제외한 순수한 교사용도의 건물은 창영초교와 삼성초교 2개뿐이다.

건축적 특성과 교육적 시대상황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일부 선교 및 민족사학의 대학(연대, 고대)과 중학교(중앙, 계성, 수피아)의 경우 동일학교 시설의 다수가 문화재로 지정되는 편중성을 보이고 있어 시대적 대표성과 지역적 상징성이 약화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4. Status of Organizer & Education Facilities Type

구분	관립 국립	(민족) 사학	선교 사학	대학	중학교	초등 학교	계
지정	9	5	11	10	11	4	61
등록	23	5	8	10	15	11	

3.3 지역별 분포현황

연구대상 건축물의 지역적 현황을 보면 충청도 및 전라도, 경상도의 경우 등록문화재를 제외한 다른 지정문화재는 전무하며, 특히 경상북도의 경우 교육시설이 문화재로 지정된 것이 하나도 없는 반면에 사적은 서울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인천과 대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시도유형문화재가 하나도 없으며, 서울, 부산, 광주에 1개씩의 시도기념물 및 문화재자료 역시 대구와 대전에만 3개가 지정되어 있는 등 지역적 편중성이 심하다. 이러한 지역적 편중성은 앞서 분석한 대상 건축물의 설립주체와 시설유형과의 연관성이 깊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등록문화재 제도 도입으로 인해 등록문화재의 경우 지역적으로 폭넓게 지정되어 있는 현황을 보이고 있다.

3.4 주요 구조와 재료 현황

주요 구조는 석조와 조적조가 압도적으로 우세하며 RC조와 조적+RC조가 그 다음으로 우세하다. 특히 지정문화재의 경우 대부분이 목조, 석조, 조적조의 구조로만 지정되어 있고, 등록문화재의 경우 조적조와 RC조가 전체의

Table 5. Distribution of Regional Groups

지역	종목	사적	시도유형 문화재	시도 기념물	문화재 자료	등록 문화재	계
서울		11		1		6	18
부산				1		1	2
인천			2			1	3
대구		1	5		1	1	8
광주				1		8	9
대전					2		2
충청	남도					3	3
	북도					5	5
전라	남도					7	7
	북도					3	3
경상	남도					1	1
	북도						
계		12	7	3	3	36	61



반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대상 건축물의 건축연도와 연관성을 가지며, 역사성과 관련해서 목구조 및 석구조를 상대적으로 우월하게 인식하는 기존의 문화재 인식과도 연관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1950-60년대 표준설계도에 의해 지어진 RC조 초등학교시설은 지정문화재뿐만 아니라, 등록문화재로서의 지정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정사례가 전무하다. 다만 조적+RC조의 경우 1940년대 일부 초등학교와 1950년대 일부 대학교에서만 지정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1950-60년대 표준설계도에 의한 학교시설은 건축가의 작품으로서의 의미보다는 근대화 및 산업화라는 시대적 상황의 반영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Table 6. Status of main structure materials

구조구분	목조	석조	조적조	RC조	석조+RC	조적+RC	계
지정	1	6	18	-	-	-	61
등록	3	4	15	8	1	5	

### 3.5 보존과 활용 현황

연구대상 문화재지정 건축물중에서 소록도 내의 시설인 (구)성실중고등성경학교 교사(등록74호/1957)와 (구)녹산초교 교사(등록73호/1935), 그리고 강경화교학교 교사 및 사택(등록337호/1925)등 3개를 제외하면 모두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본래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은 강당시설과 일부 대학시설과 중고교의 본관을 제외하면 본래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가 적은 것으로 분석된다.

본래의 교사(연구)동이 현재까지 교사(연구)동으로 보존 활용되고 있는 시설은 대학과 중고교 및 초등학교 시설에 총 11개이나 본래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 시설은 이보다 많은 20개이다. 하지만 본관이나 도서관, 강당이 본래의 용도로 활용되는 숫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다소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교사(연구)동이 전용되는 경우 대부분 기념관, 역사관, 박물관, 본관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일부 종교시설의 경우 성당(예배당)으로 전용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본관, 강당용도의 시설이 다른 용도로 전용되는 경우는 극히 일부 일반 사무실이나 강의동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가 있으며, 대부분 역사관, 전시관, 박물관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렇듯 대학과 중고교, 초교의 교사(연구)동이 전용되는 경우가 많은 까닭은 대학과 중고교의 경우는 역사성과 상징성을 고려하여 본관이나 기념관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초등학교의 경우는 교육과정과 학생 수 변화로 인해 전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현재 본관, 행정동(16개) 및 기념관, 역사관, 박물관(12개) 등으로 전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교육시설이 전체 활용중인 건축물(58개)의 절반에 가까우며, 교사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총 16개로서 시설유형대비 대략 20-30% 수준이다. 따라서 본래의 용도를 유지하며 보존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7. Status of conservation & Utilization

본래 용도	활용 여부	대학시설	중고교 시설	초교시설	계
교사	O	3	6	2	11
	X	8	7	5	20
본관 도서관	O	6	3	1	10
	X	2	4	1	7
강당 체육관	O	1	3	3	7
	X	-	2	1	3

구분	교사 연구	본관 행정	체육관 강당	박물관 기념관 역사관	성당 예배당	도서관 기타	계
대학교	4	10	1	1	1	3	20
중고교	8	5	4	7	-	1	25
초교	4	1	2	4	1	1	13

관(12개) 등으로 전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교육시설이 전체 활용중인 건축물(58개)의 절반에 가까우며, 교사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총 16개로서 시설유형대비 대략 20-30% 수준이다. 따라서 본래의 용도를 유지하며 보존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3.6 건축 양식적 특성 현황

문화재지정 학교시설의 樣式的 특성은 지정문화재의 경우 樣式指向的 건축물이 많은 반면에 등록문화재의 경우는 근대적이나 樣式性과 절충적 특성을 갖고 있는 건축물이 대부분이다. 이것은 일제강점기의 조적조 건축물이 주류를 이루는 문화재 지정현황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설유형으로 보면 중고교 및 대학은 주로 樣式指向性을, 초등학교는 절충적인 근대적 특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적으로는 서울과 경상도의 지정문화재는 주로 樣式指向的 특성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등록문화재의 경우 비교적 근대적 특성을 보이는 건축물들이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樣式指向的 건축물의 경우,

Table 8. characteristic status of Architectural Styles

구분	樣式 지향	근대+ 樣式	근대 西洋式	韓洋 절충식	전통 형식	계
지정/등록	15/4	3/9	5/22	2/0	0/1	25/36
초등학교	1/0	1/2	2/8	-	0/1	4/11
중고교	5/2	1/5	3/8	2/0	-	11/15
대학교	9/2	1/2	0/6	-	-	10/10
서울	11/2	1/0	0/4	-	-	12/6
경기.인천	1/0	-	1/1	-	-	2/1
충청	-	1/2	1/6	-	-	2/8
경상	3/0	1/1	2/2	2/0	-	8/3
전라	0/1	0/6	1/10	-	0/1	1/18

指向하는 樣式의 경우도 대부분 아카데미 튜더식고딕이나 르네상스식 및 고딕복고식 등과 같은 절충적 특성의 樣式이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지정문화재의 경우, 서울과 경상도(대구)의 樣式지향적 특성을 보이는 대학과 종교 시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이유는 서울과 대구지방의 선교사학의 문화재지정현황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 4. 결론

근대교육시설을 처음 수용하기 시작하는 시기인 1895년부터 1960년대 초반까지의 근대교육시설 변화과정을 시기적으로 고찰하고, 문화재로 지정된 근대교육시설의 건축사적 의미와 특성, 가치, 현황 분석 등을 통해서 연구대상 학교시설이 해당시대와 지역의 교육적, 건축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지와 지정현황의 문제점 등에 대해서 고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문화재로 지정된 근대교육시설의 건축연도 및 문화재 지정시기, 주요 구조의 재료, 지역분포, 설립주체와 시설 유형, 양식성과 활용용도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나타나는 편중성으로 인해 연구대상 건축물이 속한 해당 시기의 건축적 대표성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건축연도와 지정시기, 교육시설유형의 편중성과 집중성은 교육시설의 시대적 대표성과 상징성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둘째, 일제강점기 때의 관공립 학교시설들은 초기 한옥 변형 목조학교로부터 시작해서 조적조교사, RC조 교사 등으로 변해왔으나, 1960년대 초 RC조 표준화학교가 문화재로 지정된 사례가 없다는 사실은 근대교육시설의 시대적 단절의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건축된 지 50년 이상 경과되어 점차 소멸되어가는 많은 1950, 60년대 표준설계도로 건축된 RC조 학교의 등록문화재로의 지정과 보존 관리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셋째, 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 중에서 석조와 조적조구조가 압도적으로 우세한 현상은 건축연도의 편중성과 깊은 연관을 갖고 있으며, 지정문화재는 목조, 석조가 우세하고 등록문화재는 조적조와 RC조가 우세한 경향을 보인다. 특히 근대교육도입 초창기 주요 설립주체 중에 하나인 선교사학의 경우는 樣式指向性 조적조 교사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선교사학 이외의 樣式指向的 학교시설들은 대부분 석조의 아카데미 튜더식 고딕이나 르네상스식 및 고딕복고식 등과 같은 절충적 樣式性을 차용하는 樣式的 편중성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고등교육시설이 중세 수

도원에서 유래했다는 역사성과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지역적으로는 서울과 대구지역에 樣式指向性 학교시설이 많은 것은 선교사학의 문화재지정 현황과 관련이 있다.

넷째, 근대교육시설의 획일적, 제한적 용도로의 보존. 활용현황은 해당 문화재 본래의 건축적 의미와 가치를 왜곡하고 퇴색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보존활용에 대한 매뉴얼 개발을 통해 본래의 용도와 특성을 유지할 수 있는 활용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References

1. Korean Institute of Education Facility. History of Modern School Buildings of Korea.(1895-1945), (1945-2003). Research of Korean Institute of Education Facility, 3. 2004.
2. Kim, Young-Jae, Accommodation process and Its Meaning for Nakamura Ysshihei's Western Architectural manners in Cooperation with Anton Martin Feller and Tatsuno Kingo.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Planning & Design. 5, 2013.
3. Ryu, Bong-Ho. Kim, yung-Za. Modern·Contemporary Middle Education of Korea during 100 years. seoul kyuhak-sa. 1998.
4. Kim, Seung-Bae, Review of Modern Educational Facilities Designated as Cultural Properties in Seoul and Incheon.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Educational Facilities. 07, 2012.
5. Lee, Do-Young, Educational Facilities as Modern Cultural Assets of Daegu·Gyeongbuk Province.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Educational Facilities. 07, 2012.
6. Lee, Kwang-No, Suh, Ki-Young, Woo, Chang-Hoon, Lee, Young-Han, A study on the Typological Analysis of Modern School building in Korea. Journal of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Planning & Design. 8, 1987.
7. [http://www.cha.go.kr/korea/heritage/search\\_statistics/](http://www.cha.go.kr/korea/heritage/search_statistics/)(Heritage search & statistics information web site of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8. <http://contents.archives.go.kr> (National archives of Korea web site/ Collection of school buildings drawing a period of Japanese Colonial)
9. Choson Architectural Institute. Choson & Architecture(朝鮮建築會. 朝鮮と建築. 昭和3年 3月號, 昭和17年 6月. 7月號).

접수 2013. 9. 30  
1차 심사완료 2013. 11. 6  
게재확정 2013. 11. 20